



원전 해체, ESS 개화기, 그런데 현대일렉트릭의 주가 급락

코멘터리

대표 차트

수주와 설은

- ① 현대상선이 대우조선해양에 VLCC 5척+웁선 5척을 계약했습니다. 신조선가는 시장가 \$81M보다 높은 \$83.8M인데 TIER III 등을 적용한 고사양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 ②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에서, 유조선 15척을 한국에서 건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은 "앞으로"라고 언급해 15척이 한꺼번에 발주되는 성격은 아닌 듯 합니다.
- ③ 해양에서는 6개 야드가 경합 중인 Shell의 VITO에서 이번주 미팅이 열고 Shortlist를 추릴 예정입니다. 경쟁구도는 가격의 중국 COOEC와 경험 및 관계의 삼성중공업이 앞서 있다는 업데이트입니다. FID가 2017년말~2018년초, EPC 선정은 이보다 1개월~2개월 전이라고 해, 기존 뉴스에서보다 일정이 다소 앞당겨진 느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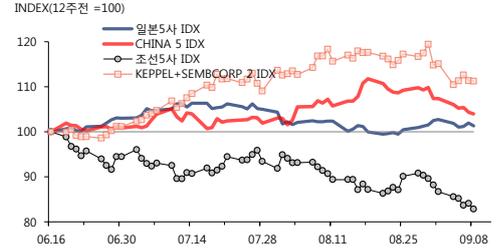
실적 및 ASP와 관련해서는

- ④ 지지난주 올랐던 신조선가지수는 전선종 포함으로 제자리였지만, 지난주에는 중고선가지수가 1P 오른 88P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VLCC(5년) 중고선가는 하락했지만 벌크 대다수 선형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벌크가 견인하는 중고선가지수 상승에는 한계가 있다는 당사 판단입니다.
- ⑤ 삼성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한국 LNG 보냉재 기술 KC-1이 적용된 LNG선 2척의 인도가 6개월 연기되었습니다. GTT의 독과점 및 로열티에서 자유롭기 위해, KOGAS에서 25년간 개발한 한국형 보냉재 기술은, 현재 KLT(KC LNG Tech)에서 옮겨졌고 BIG3도 49.8%를 보유 중입니다. 2014년 KOGAS의 미국 셰일가스 수입을 위한 6척 중 SK해운이 가져간 2척이 KC-1 기술을 채택했습니다. 후속으로 7,500CBM 소형 LNG선도 발주해 역시 삼성중공업에서 건조 중입니다. 용접, 출판 주름 등의 이유로 인도 기한을 이미 넘겼고 최소 6개월 연기가 예상되는데, 큰 기술 이슈인지, 초도선 건조에 따른 시행착오인지 여부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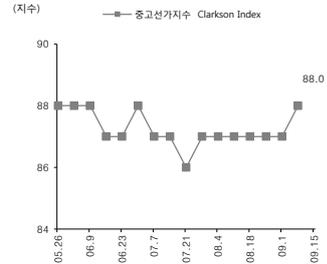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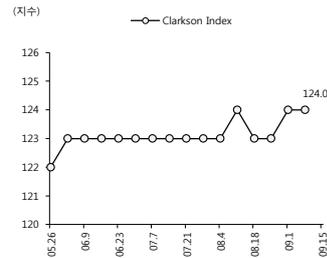
탈원전과 ESS 관련..

- ⑥ 고리1호기를 한국 기술로 해체하기 위한 실용화 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4개 분야 중 두산중공업이 핵심설비 해체공정 시뮬레이션을 담당합니다.
- ⑦ 서울시가 공공시설 중 최초로 중량물재생센터에 18MW ESS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탈원전과 함께 효과적 전기 사용을 위한 ESS 시장이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현대일렉트릭의 주가는 지난주에도 유상증자 때문에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방의 큰 그림은 우호적이지만, 당장 3분기 비수기와 드문드문한 뉴스 플로우로, 반전의 트리거는 찾기 힘든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주가 급락으로, (희석 반영 후에도) PBR 1배(ROE 9%), PER 10배로 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국 주가는 실적과 VALUATION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 한/중/일/싱 주가 추세: 한국 언더퍼폼



▶ 신조선가지수 & 중고선가지수



주시 뉴스

※ 상세 내용은 아래 해당 섹션 참조

▽ 실적과 ASP

- △ 신조선가지수 포함, 중고선가지수 5주만에 벌크 때문에 상승
- ▼ 삼성중공업이 건조 중인 Kogas의 KC-1 LNG선 일단 6개월 인도 연기
- ▷ 현대상선 "VLCC, 비싸게 발주한 것 아니다". TIER III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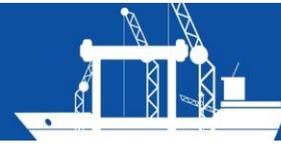
△ 수주

- △ 고리1호기 해체 기술 실용화 사업 본격화
- ▲ 한전,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확대 운영 보강계획 수립
- △ 공공시설 최초로 18MW 규모 ESS 설치

ASP & 실적관련(국내외)

△ 신조선가지수 포함, 중고선가지수 5주만에 벌크발로 상승

신조선가는 전선종/선형이 제자리를 유지했고 지수도 124p로 포함
중고선가는 VLCC의 리세일, 중고선가가 하락했지만 대다수 벌크선형이 상승해 중고선가지수는 1p 상승한 88p



▼ **삼성중공업이 건조 중인 Kogas의 KC-1 LNG선 일단 6개월 인도 연기**

- 2014년 Kogas는 미국 셰일가스 수입을 위해 6척의 LNG선 용선 발주를 했고, 대한해운, 현대LNG, SK해운이 2척씩을 수주
- 이 중 SK해운-삼성중공업의 LNG선 2척은 25년 동안 개발한 자체 기술 KC-1을 적용키로 함
- 1호선이 8월, 2호선이 9월 인도 예정이었지만 2개 호선 모두 최소 6개월 인도를 지연하기로 함: 주름과 용접 이슈
- 한 전문가는 KC-1은 여전히 이론에 기반했지만 상용화에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기도 함
- SK해운은 인도 연기에 따라 FLEX의 170k LNG를 6개월+연장 옵션으로 용선해서 임시 대응하기로 결정
- 2016년 Kogas는 KC LNG Tech(KLT)를 설립해 지분 50.2%를 보유 중이고, 나머지 지분은 조선BIG3가 각각 16.6%를 보유 중
- 이 KC-1 LNG선 2척 후속으로는, 올해 4월 통영-제주_애월 구간을 담당할 7,500cbm 소형 LNG선에도 KC-1을 적용하기로 함: 삼성중공업이 척당 \$50m에 건조
- >> GTT의 막대한 로열티 지급을 피하기 위한 대체재로서 LNG선 건조 강국 한국의 자체기술을 첫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 >> 잠재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성공적으로 건조 및 운영하기를 기대해봅니다.

▷ **컨테이너선 중고선가 급등했지만, 'One-off'**

- 일반 파나마스 컨테이너선이 연초보다 2배의 가격으로 매각됨
- 미얀마 CIH가 보유한 2010년 건조 4,380teu를 중국 Ansheng Shipping이 \$13m에 인수
- 이 가격은 동 선사 8월에 매입한 자매선보다 30% 높고, 연초에 매각된 Daewoo 4400 desing보다 2배나 높은 가격
- 그러나 브로커는 벤치마크 가격이라기 보다는 one-off 성격이라고 설명
- 구매자들은, 긴급 인도/운영이 가능한 선박이 필요해 높은 가격을 지불한 것이라고 전함

△ **현대중공업, 최신에 잠수함 `신돌석함` 진수식**

<http://nr.ii/nb61w>
오는 12월 해군에 인도된 후, 5개월간 임무수행을 위한 승조원 훈련을 거쳐 오는 2018년 4월에 실전 배치
현대중은 모두 9척의 214급 잠수함 가운데 1번함인 '손원일함', 2번함 '정지함', 3번함 '안중근함', 5번함 '윤봉길함', 7번함 '홍범도함'까지 총 5척을 건조했으며, 9번함도 지난 2014년 2월 착공에 들어가, 진수된 것

외신 보도들

- 뉴스/FACT > 당사 의견

▶ **해양 생산**

▲ **Shell, Vito 프로젝트 Shortlist 추리기: COOEC, SHI 앞섬**

- 6개 입찰참여자에서 추리는 작업을 시작: 이번주 휴스턴에서 clarification talks를 가짐, 태푸 Harvey로 스케줄이 일주일 미뤄진 것
- 주변자는 중국 COOEC와 한국 삼성중공업이 가장 앞서 있다고 전함
- : COOEC는 가격에서, SHI는 Shell의 Appomattox, BP의 Mad DOG2 등 다수 GOM semisubs를 건조한 이력 인정
- Clarification talks는 향후 FID 등을 향해 한발 진척을 의미: 건조 야드를 선정 후 1개월~2개월 후 2017년말이나 2018년초 FID를 내릴 예정
- Shell은 Hull, Topsides, Integration의 3개 패키지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할 예정
- Jacobs의 FEED에 따르면, Vito는 기존 계획보다 단순화된 Design으로 더 작고 가벼운 구성으로 사업 BEP 유가를 \$45/br로 떨어뜨림
- >> 7월에 알려진 2018년2분기보다 다소 FID가 빠른 것으로 보도 상 업데이트되었습니다.

(7월2주) ▲ **Vito semisub 입찰: 2018년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이번주 6여개 야드들이 Shell의 GOM, Vito 프로젝트에 입찰 참여: 한국의 BIG3, SembCorp, Keppel, COOEC 경합
- 2.4만톤 FPU, 100천B/D, 2021년 생산 시작
- 한국과 싱가포르는 8,800톤 탑사이드와 15,000톤 hull을 모두 노리는 반면
- 중국은 COOEC는 탑사이드만을 노리고, Hull 제작과 Integration은 CIMC Raffles에서 할 계획
- 미국 Kiewit도 탑사이드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지만 확인되지는 않음
- Shell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연내 결정해, 2018년 2분기 FID를 내릴 예정
- 최근 Shell의 Appomattox 프로젝트도 진행한 삼성중공업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연초 야드 인명 사고가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함
- 사업의 손익분기점은 \$45/barrel: 연초 2월 Shell의 upstream 담당자는 비용 절감 성공적이라고 밝힌 바 있음
- Shell은 최근 허가된 Kaikias Development의 비용을 50%, Appomattox의 비용도 20%나 절감한 바 있음
- Shell이 63.1%, Statoil 36.89% 지분 보유

(17년4월1주) △ **Statoil의 VITO FID 2018, EPC 발주 17년말~2018년**

△ **Johan Sverdrup, 입찰 경과 재차 업데이트: 3Q18 FID**

- 기존 WHP를 대신해 subsea production system으로 변경: 탑사이드 플랫폼 적용은 그대로
- ph2는 ph1의 440천boepd에 비해 작은 220천boepd이지만, 탑사이드는 ph1 26,500톤보다 조금 작은 21,500톤
-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입찰에 참여 중이며, 로컬 업체들이 modular 접근으로 일부 물량을 받아 갈 수 있을 것으로 역시 업데이트
- FID는 3Q18로 기존 보도와 동일

(7월3주) △ **Statoil의 Johan Sverdrup P2: 2018년 입찰 시작 및 FID**

- Statoil의 220천b/d Johan Sverdrup P2 프로젝트: 47억~65억\$
- 4Q17 PQ를 진행해, 2018년 상반기 입찰을 개시할 예정
- 본계약은 아마도 FID가 내려지는 3분기일 것으로 현재는 일정 잡힘
- P1은 한국 조선사들만 PQ를 통과하고 경합(SHI 수주)했지만 P2는 P1보다 사이즈가 작아져서 더 많은 업체들이 경쟁할 것으로 추정
- Aibel, Kvaerner의 로컬 업체도 수주를 노리지만, 현재로서는 SHI > HHI 구도로 알려짐
- Aker Solution이 FEED를 수주해, 진행 중

▶ **기타**

▷ **현대상선, 한진중공업-수빅의 11,000teu 컨테이너선 리세일 매입**

- 현대상선은, 대우조선해양에 VLCC 5척을 신조 투자하면서 동시에
- 수빅조선사에서 건조 중인 11,000teu를 \$162m에 매입: 2018년3월 인도물이며, Oceanbulk Containers가 발주한 선박
- 척당 \$81m은, 현재 시장 가격보다 10% 낮은 수준인 것으로 전함: 한진중공업이 중도 선수금을 수령하지 못한 선박을 매각한 것으로 전함
- 현대상선에 해당 선박을 남미 항로에 투입할 예정이며, 동시에 10,000teu와 8,000teu 노후선을 교체할 예정: 이는 2M 얼라이언스와의 선대 공용 운영을 위함
- 한편 Oceanbulk의 컨테이너는 11척으로 줄었으며 이 중 2척만이 최신 선박: 또한 중국 SWS에서 건조 중인 11,000teu 3척을 캄보디아 벌크선 4척으로 계약 변경
- Oceanbulk는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철수는 아니라고 설명



한국 조선업 수주설

▼ Clarksons 신규 수주 업데이트

@HMM→Daewoo (DSME), TK(300k) 5척

△ 대우조선, 현대상선과 VLCC '5+5' 본계약 체결
<http://lnr.li/6uplM>

지난 4월 초대형유조선 5척(추가 5척 옵션)에 대한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한 뒤 약 5개월만에 본계약을 체결
현대상선은 지난 2011년 국내 해운사가 운영하는 컨테이너선 중 가장 큰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5척을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바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현재까지 LNG선 2척, VLCC 14척, 특수선 2척 등 총 18척 17억5000달러 상당의 선박을 수주

▼ 신조 발주설(뉴스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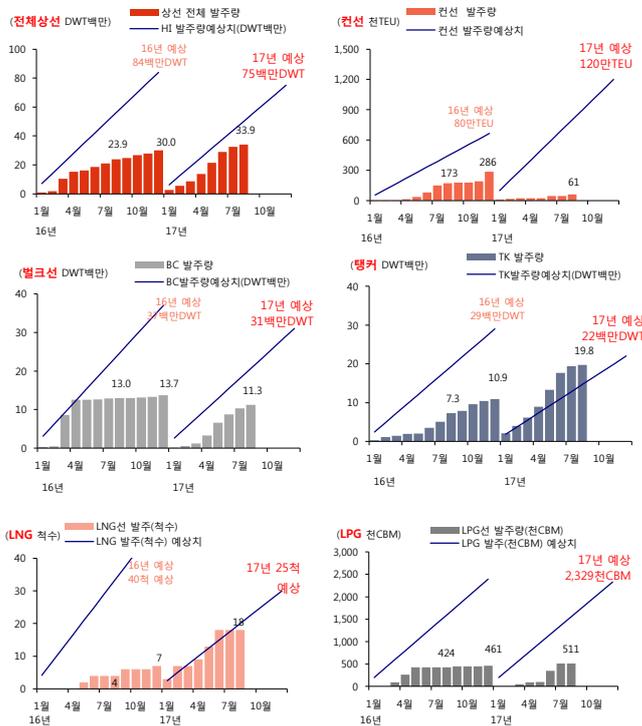
△ "러시아 유조선 15척 한국서 건조" 문 대통령이 푸틴과 합의한 사업

<http://lnr.li/KhDje>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순방 중 '러시아 유조선 건조' 경험 사업에 합의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문 대통령과 함께 한 공동 언론발표에서 러시아 업체 유조선 15척을 한국에서 건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
푸틴 대통령은 "양국 정상은 에너지 분야에서도 건설적 협력이 이뤄지는 것에 만족을 표함: LNG 도입에 관해서도 건설적 논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 (러시아 업체) 유조선 15척이 한국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사 예상 대비 발주와 발주 LIST

▶ 당사예상 대비 발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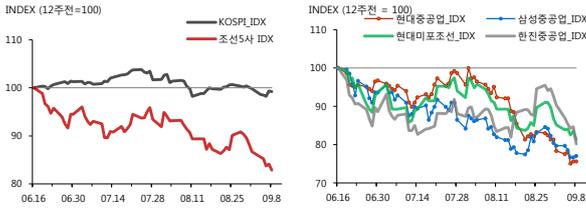
▶ 신조 발주 내역 - 한/중/일 주간

국가	조선사	계약일	발주 국가	발주처	Type	크기	인도	척수
17년08월3주								
한국	Dae Sun Shipbuilding	17.8.15	중국	SITC	CONT	1k TEU	2018~2019	4
		17.5.1	중국	SITC	CONT	1k TEU	2018	2
일본	I-S Shipyard	17.4.1	Unknown	Unknown	BULK	7k DWT	2019	1
17년08월4주								
민영	Jiangsu New YZJ	17.7.24	유럽	Angelakos Hellas SA	BULK	82k DWT	2019	4
	AVIC Dingheng SB	17.8.25	유럽	SOCATRA	PTK	8k DWT	2019	2
	Fujian Mawei SB	17.7.21	중국	Shun Yuan Group	OTHERS	7k DWT	2018	1
	Hin Lee Shipyard	17.3.1	아프리카	Kenya Ports Auth.	OFF-기타	4k HP	2018	1
		17.2.1	아시아	Cheoy Lee Shipyards	OFF-기타	2017~2018	4	
	Fujian Southeast SB	17.8.18	중국	Fujian Anda Shpg	BULK	21k DWT	2019	1
Aulong SB Co	17.8.2	중국	Zhuhai Ferry	FERRY	2018	1		
일본	JMU Ariake Shipyard	17.7.1	일본	Mitsubishi Ore Tpt	BULK	208k DWT	2020	1
Oshima Shipbuilding	17.8.25	북미	Foremost Maritime	BULK	85k DWT	2019	2	
17년08월5주								
BIG6	Hyundai Mipo	17.8.25	중동	Bahri Dry Bulk	BULK	80k DWT	2020	4
		17.8.31	러시아/CIS	Sovcomflot JSC	TK	42k DWT	2019	1
		17.8.25	북미	Teekay Shuttle	TK	158k DWT	2019~2020	2
17년09월1주								
BIG6	Daewoo (DSME)	17.9.4	한국	HMM	TK	300k DWT	2019	5
민영	COSCO Zhoushan	17.9.5	유럽	Aegean Shipping Mngt	BULK	82k DWT	2019	4
	AVIC Dingheng SB	17.9.4	유럽	Erik Thun AB	PTK	18k DWT	2020	1
	Jiangsu Hantong HI	17.7.31	Unknown	Atlantica Shipping	BULK	82k DWT	2019	1
	Fujian Mawei SB	17.9.5	중국	CNAF Haixin Shipping	PTK	15k DWT	2019	1
		17.6.1	중국	Qiming Electric Powe	해양설치	0k LOA	2018	1
	COSCO Dalian SY	17.8.31	중국	COSCO Shipping	BULK	62k DWT	2019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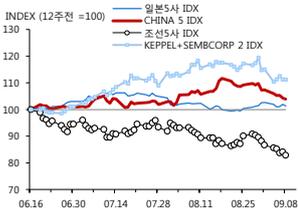


Peer Group 등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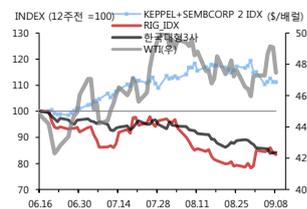
▶ 한국 조선 대형3사, 중형3사 INDEX



▶ 조선업 한중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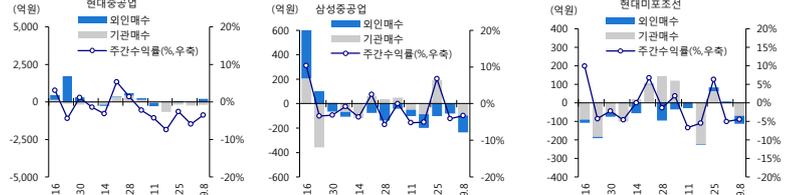


▶ 유가 VS 리그선주, 싱가포르 Offshore 제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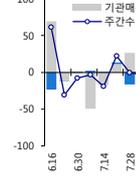


조선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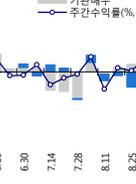
▶ 조선6사 수급



▶ 한진중공업



▶ 두산연철



국내 보도

▶ 공통 보도

▷ 컨테이너선 대신 유조선 발주한 현대상선, 속내?

<http://nr.ii/MmLEc>

현대상선이 대우조선해양에 초대형 유조선(VLCC) 5척을 발주하면서 선대 확장에 나섰지만, 해운업계 안팎에선 컨테이너선을 발주하지 않은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 해운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을 도와줄 때는 정책적 목표에 맞게 도와줘야 한다"며 ...

... "당초 정부는 한진해운의 물막으로 무너진 컨테이너 정기선 경쟁력을 살리겠다며 해운산업 지원 정책을 내놨지만 유조선은 이와 관련이 없다"고 비판 앞서 현대상선은 한진중공업이 필리핀 수빅조선소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는 1만10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인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작은 규모

이번 유조선 발주가 현대상선의 경영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현대상선 관계자는 "현재 계약을 맺기 위해) 여러 곳과 협의 중에 있다"고 전함 현대상선 측은 컨테이너선 발주를 포기한 게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을 재고 있다는 해명

유조선 선대를 구축해 장기계약까지 맺어두면 회사 입장에서는 또 다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안전판이 될 수 있다고도 현대상선 측은 주장

▷ 현대상선 "VLCC, 비싸게 발주한 것 아니다": TIER III 효과

<http://nr.ii/6xByk>

계약금액이 시장가격 대비 약간 높지만, 친환경설비 등 선박사양이 높아지면서 선박가격도 다소 오른 것일 뿐 선박 품질을 감안하면 절대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설명 지난달 31일 현대상선은 4702억8478만 원을 투자해 VLCC 신조선박 5척을 확보한다고 공식

미화로 환산하면 4억1885만달러, 척당 8377만달러에 이번 계약이 체결된 셈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32만DWT급 VLCC는 척당 8100만달러

오는 2019년 9월 말까지 인도될 예정인 이들 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강화된 환경규제인 'Tier III' 기준이 적용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현대상선이 대우조선에 비싼 금액을 지불하며 선박 발주를 단행했다는 시각도 제기

현대상선 관계자는 "이번에 발주한 선박들은 고유황(High Sulfur Heavy Oil) 중유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

... 저유황 중유나 MGO(Marine Gas Oil)은 고유황 중유 대비 상당한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

... "LNG도 연료로 사용가능한 이중연료 추진시스템과 스크러버 장착 중 단순히 어떤 방식이 더 우수하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

▶ 현대중공업 보도

▷ 현대로보틱스, 대규모 신디케이트론 조달

<http://nr.ii/kWaDx>

현대로보틱스가 2500억 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을 단행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이하 현대일렉트릭)이 시도하는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비한 포석으로 관측

현대로보틱스는 최근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주요 증권사를 상대로 2500억 원 안팎을 차입한 것으로 파악

관계자는 "앞서 현대로보틱스가 1년 6개월을 만기로 대규모 신디케이트론을 진행했다"며 "약 2500억 원 가량을 끌어 모았다"고 설명

이어 "차입금 차환과 유증 대금 등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본다고 설명

현대로보틱스가 만일 지분율만큼 증자에 참여한다면 총 2000억 원 이상을 계열사(현대건설기계 1092억 원, 현대일렉트릭 962억 원)에 투입해야 함

△ 현대중공업, 자금조달 '고군분투' ...SPC가 사모채 인수

<http://nr.ii/kEJYA>

현대중공업은 지난 6일 사모채 2년물 650억원 어치를 발행

회사가 찍은 650억원 중 300억원은 특수목적회사(SPC) '에스제이파워마린'이 인수

SPC는 유동화기업어음(ABCP) 304억원 어치를 발행한 자금으로 현대중공업이 찍은 300억원 규모의 사모채를 인수

현대중공업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분석

현대중공업이 현재 들고 있는 회사채 규모는 2044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신중자본증권 30년물 4300억원 어치

또 올해 12월과 내년 1월 사이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어음(CP) 1050억원도 남아있음



▽ 현대중공업 직원 5주씩 순환휴직

<http://lnr.li/8hDEi>

우선 조선부문 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5주씩 7차례에 걸쳐 내년 5월까지 순환휴직을 시행하기로 함
휴직에 들어가는 직원은 평균 임금의 70%를 받기로 함
해양(플랜트)부문도 휴직 계획을 수립해 조만간 확정할 예정: 해양부문은 조선부문보다 유휴인력 규모가 커 휴직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 현대중 노조, 사내하청지회 통합 무산...대의원 투표서 부결

<http://lnr.li/3P7vx>

사내하청지회와 사무직 노조인 일반직지회를 합쳐 원청노조 소속으로 두기 위해 규약 개정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부결
노조 관계자는 "노조 조직력 확보를 위해 사내하청지회와 일반직지회를 현대중 노조 소속으로 두어야 하며, ...
... 10월 현대중 새 집행부와 분사한 4개사의 지회장 선거를 치르기 위해 규약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

▶ 삼성중공업 보도

▷ 삼성·대우조선 이번에는 '시드릴' 파고

<http://lnr.li/F85DF>

해양시추업체 시드릴(Seadrill)은 오는 12일까지 미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Chapter 11)를 신청할 계획
노르웨이 선박왕 존 프레데릭슨이 소유한 시드릴은 저유가로 인한 해양시추 불황에 93억달러(10조5000억원)에 달하는 채무
지난 4월에는 28억8000만달러(3조2600억원) 규모의 채권 만기를 지난달로 연장했으며, 7월에는 금융권과 8억8000만달러(1조원)에 이르는 신용 대출 만기도 오는 14일까지 (여기에 10억달러(1조1300억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골자로 한 채무조정안을 준비 중
시드릴이 기업회생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조선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됨
시드릴은 2013년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각각 2척의 시추선을 발주: 삼성중공업은 올해 3월 시추선 2척을 인도할 계획이었으나, ...
... 시드릴의 요구로 인도 일정을 협의 중,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말까지였던 2척의 시추선 인도 일정을 각각 내년 4월과 2019년 1월로 연기
삼성중공업은 시드릴과 계약 당시 총 건조금액의 30%를 선수금 대우조선해양도 건조금액의 20%를 먼저 수령
최악의 경우 시드릴이 아예 시추선을 인도하지 않겠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관계자는 "시드릴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 유동성 여유가 생기는 만큼 잔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 대우조선해양 보도

△ 대우조선, 현대상선과 VLCC '5+5' 본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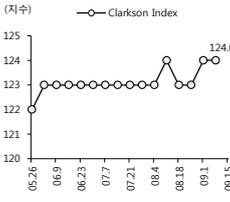
<http://lnr.li/6uoiM>

지난 4월 초대형유조선 5척(추가 5척 옵션)에 대한 건조의향서(LOI)를 체결한 뒤 약 5개월만에 본계약을 체결
현대상선은 지난 2011년 국내 해운사가 운영하는 컨테이너선 중 가장 큰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5척을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한 바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현재까지 LNG선 2척, VLCC 14척, 특수선 2척 등 총 18척 17억5000달러 상당의 선박을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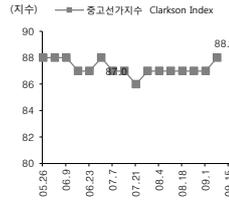


신조선가 &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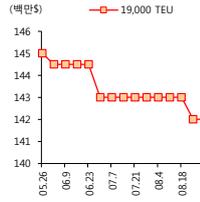
▶신조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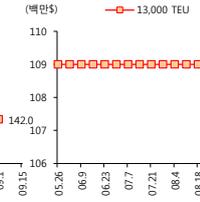
▶중고선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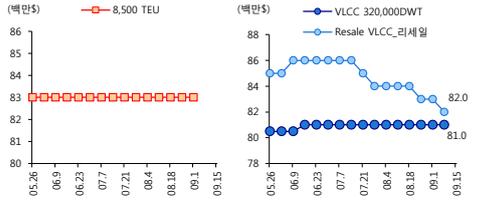
▶메가 울트라막스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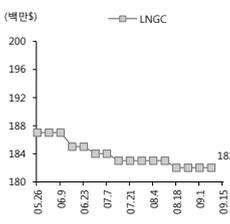
▶메가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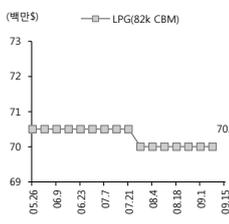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 8,500 ▶탱커 신조 vs 리세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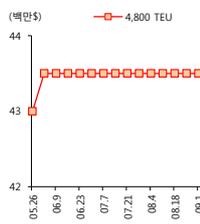
▶LN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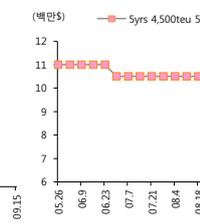
▶LPG선 - 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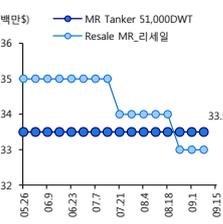
▶컨테이너선 - 신조선가 4,800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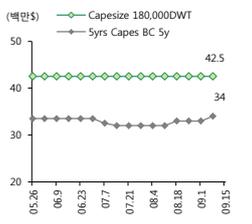
▶컨테이너선 - 중고선가 4,500teu



▶MR탱커 신조vs리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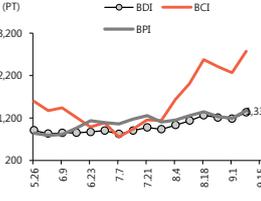


▶Capesize 벌크선 - 신조, 중고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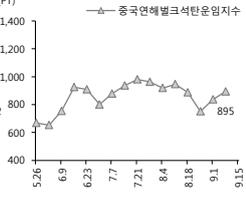


운임지수

▶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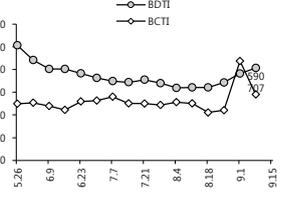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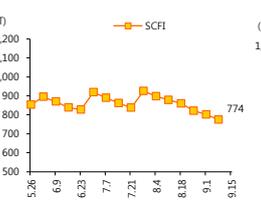
▶중국연해선적화물운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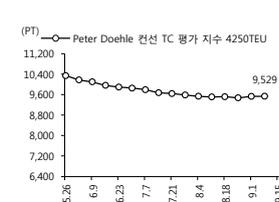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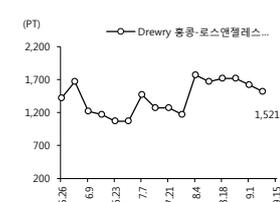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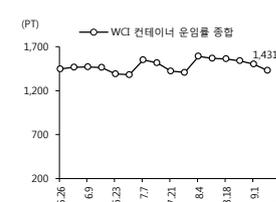
▶탱커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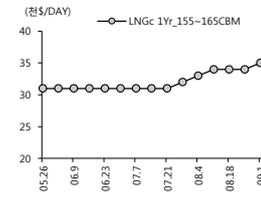


▶컨선 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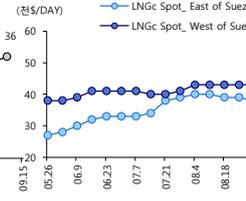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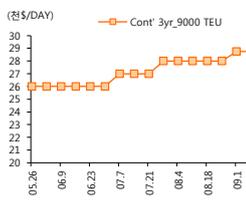
▶LNG선 1yr 용선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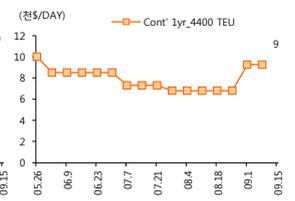
▶LNG선 SP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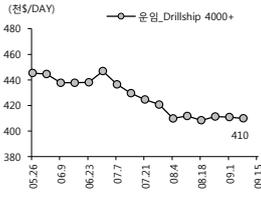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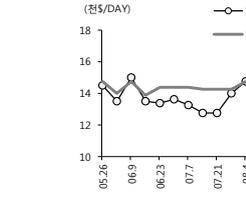
▶컨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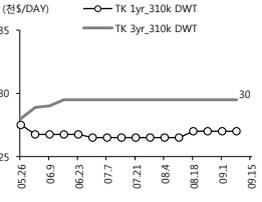
▶드릴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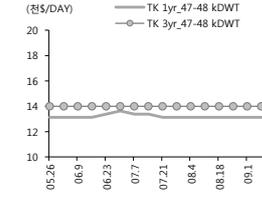
▶벌크선 - 케이프



▶탱커 - VLC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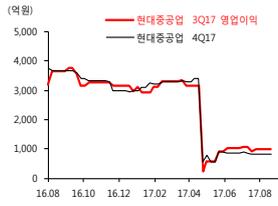
▶탱커 - M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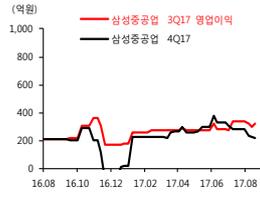


Consensu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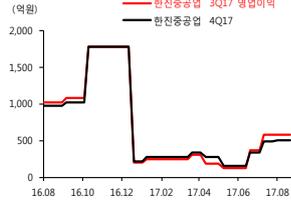
▶ 현대중공업



▶ 삼성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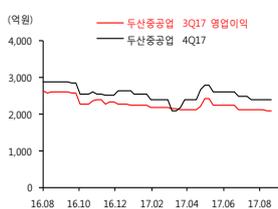
▶ 한진중공업



▶ 현대미포조선



▶ 두산중공업



▶ 두산인프라코어



▶ 두산밥캣



▶ 두산엔진



▶ 현대일렉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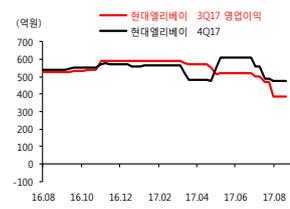
▶ 현대건설기계



▶ 현대로템



▶ 현대엘리베이터



▶ LS산전



▶ 성광벤드



▶ 태광



▶ 하이록코리아



출처: Dataguide

▶ 조선/기계 EPS, BPS 등 연간 컨센서스 추이

그룹	종목	2017 EPS(원)									Chang(%)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7.08.12	17.08.19	17.08.26	17.09.02	17.09.08	2달전 대비	4주전 대비	2017PER	증가
조선	현대중공업	10,703	13,362	4,946	5,977	5,985	5,985	12,065	15,393	18,535	210%	210%	7.4	138,000
	삼성중공업	264	319	298	287	270	270	276	275	285	-1%	6%	36.0	10,250
	현대미포조선	4,636	3,914	4,054	6,383	9,201	9,201	9,468	9,533	9,759	53%	6%	9.7	94,800
	한진중공업	233	14	-203	-103	-123	-289	-289	-411	-418	적지	적지	-9.7	4,075
두산	두산중공업	1,716	1,490	1,511	1,464	1,047	1,023	940	689	689	-53%	-34%	24.6	16,950
	두산인프라코어	755	785	811	816	878	878	878	889	890	9%	1%	9.4	8,330
	두산엔진	265	318	178	203	174	174	174	177	177	-13%	2%	22.8	4,040
기계	현대건설기계	0	0	27,546	29,191	31,298	31,298	31,298	30,744	30,769			11.0	340,000
	현대일렉트릭	0	0	26,837	27,560	27,300	27,300	27,300	26,997	26,424			8.8	231,500
	LS산전	3,435	3,596	3,575	3,673	3,862	3,862	3,862	3,900	3,900	6%	1%	14.9	58,200
	현대엘리베이	5,703	5,580	5,325	5,326	4,926	4,569	4,569	4,420	4,420	-17%	-10%	11.4	50,200
방산	현대로템	756	706	656	648	523	523	502	484	465	-28%	-11%	37.7	17,500
	한국항공우주	2,619	2,519	2,503	2,439	2,200	1,671	1,625	1,625	1,625	-33%	-26%	28.4	46,100
	한화테크윈	2,405	2,270	2,255	2,163	1,964	1,963	1,917	1,858	1,807	-16%	-8%	21.0	37,850
	LIG넥스원	3,848	3,774	3,733	3,624	4,557	4,651	4,651	4,651	4,651	28%	2%	17.3	80,300
피팅	성광벤드	106	-27	-83	-75	-100	-100	-100	-92	-148	적지	적지	-64.3	9,520
	태광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189	0%	0%	49.7	9,370
	하이록코리아	1,910	1,913	1,909	1,899	1,874	1,874	1,867	1,869	1,869	-1%	0%	11.3	2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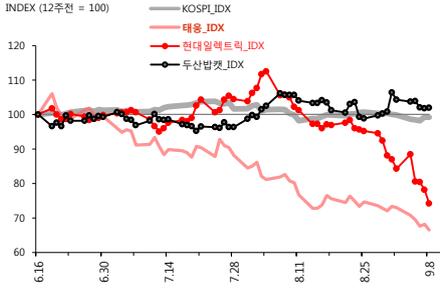
그룹	종목	2017 BPS(원)									ROE		VALUATION	
		다섯달전	네달전	세달전	두달전	17.08.12	17.08.19	17.08.26	17.09.02	17.09.08	2017	2018	2017 PBR	
조선	현대중공업	229,562	310,679	209,808	207,239	205,482	205,482	211,387	211,417	213,443	9%	1%	0.6	
	삼성중공업	17,344	17,867	18,763	18,804	18,711	18,711	18,717	18,717	18,724	2%	1%	0.5	
	현대미포조선	107,861	113,387	112,189	116,105	119,596	119,596	119,203	120,952	121,335	8%	3%	0.8	
	한진중공업	10,803	10,278	8,806	8,833	8,810	8,616	8,616	8,616	8,679	-5%	2%	0.5	
두산	두산중공업	31,780	31,062	31,005	30,714	30,164	30,126	30,089	30,062	30,062	2%	5%	0.6	
	두산인프라코어	10,723	10,565	10,572	10,646	10,616	10,616	10,616	11,047	11,050	8%	9%	0.8	
	두산엔진	7,640	7,762	7,877	7,920	7,956	7,956	7,956	7,921	7,921	2%	2%	0.5	
기계	현대건설기계	0	0	234,645	231,663	232,512	232,512	232,512	231,895	267,853	11%	13%	1.3	
	현대일렉트릭	0	0	232,775	232,450	225,780	225,780	225,780	225,780	243,098	11%	13%	1.0	
	LS산전	38,865	39,174	39,138	38,940	39,086	39,086	39,086	39,113	39,113	10%	11%	0.0	
	현대엘리베이	38,876	38,291	37,757	37,757	36,969	35,026	35,026	35,026	35,026	13%	13%	1.4	
방산	현대로템	17,125	17,142	17,085	17,066	16,964	16,964	16,938	16,882	16,860	3%	5%	1.0	
	한국항공우주	16,591	16,336	16,307	16,234	15,904	15,419	15,370	15,370	15,370	11%	16%	3.0	
	한화테크윈	48,621	45,533	45,802	45,520	45,246	45,245	45,192	45,013	45,013	4%	5%	0.8	
	LIG넥스원	31,343	31,499	31,402	31,298	32,127	32,210	32,210	32,210	32,210	14%	13%	2.5	
피팅	성광벤드	16,496	16,529	16,554	16,540	16,524	16,524	16,538	16,564	16,479	-1%	1%	0.6	
	태광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6,850	1%	2%	0.6	
	하이록코리아	23,868	24,035	24,001	23,849	23,849	23,849	23,849	23,800	23,800	8%	7%	0.9	

출처: Data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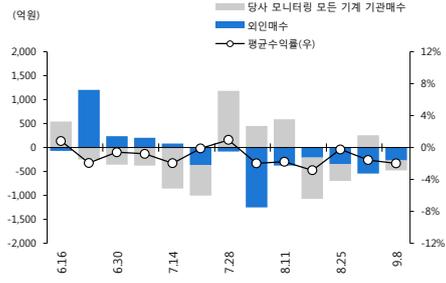
당사 기계 선호주 vs. 시장

▶ 당사 기계 선호주



당사 관찰 기계 업종 전체

▶ 당사 모니터링 모든 기계의 주간 수급과 시가총액 증감률



기계 업종 뉴스

탈원전 & ESS

△ 공공시설 최초로 18MW 규모 ESS 설치

<http://nr.ii/6QW6B>

서울시가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18MW 규모의 대용량 전력저장장치(ESS)를 올 연말까지 중랑물재생센터에 설치 설치하는 ESS는 저장용량 18MW로 일반가정 1600가구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용량 정부가 지난해 12월 ESS 활용 촉진을 위해 '특례 요금제도'를 개정한 이후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 중랑물재생센터와 LG-히타치위터솔루션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 사업은 ... 시가 물재생센터 내 유희부지(275m²)를 제공하고 LG-히타치위터솔루션이 100억원의 시설비를 투자하고, KEPCO 에너지솔루션이 관리 민간사업자는 13년간 해당 설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전기요금 절감분으로 투자·금융비 등을 회수하는 방식 사업 시행으로 중랑물재생센터는 운영기간 동안 18억원의 전력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 ESS설치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저감이 연간 5600만원 이는, 요금제 변경에 따른 요금 감소 6000만원 및 부지사용료 2400만원 등

▲ 한전,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 확대 운영 보강계획 수립

<http://nr.ii/Kb2mm>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우선 올해 4월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전원 계통연계 확대를 위해 154KV 변전소별 신재생전원 연계용량 한도를 100MW에서 200MW까지 상향한데 이어 필요할 경우 변전소 및 송전선로를 신설하는 방식 신재생전원 출력변동 단점을 보완할 있는 속응성 전원, 전기저장장치(ESS), 유연송전시스템(FACTS) 등 계통안정화 설비를 확대 적용할 계획도 수립 중

△ LS산전, 내년 산업부 예산안 수혜 기대

<http://nr.ii/P2PpI>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올해 대비 2500억원 확대하기로 결정 아울러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산업 분야에도 각각 489억원, 425억원 투자하기로 계획

건설기계

△ '소형장비' 주력 두산밥캣, 중국시장서 뜨는 3대 이유

<http://nr.ii/PGol5>

5월 중국 공정기계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중국 내 소형 굴삭기 판매량은 4만457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2.9%가 증가 소형 건설기계인 '스키드스티어러더(SSL)'의 경우 오는 2021년까지 중국 시장의 성장세가 연평균 12% 이상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 중국 내 '소형 건설기계'의 수요 급증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중국 시장 자체의 판도 변화라는 점에 주목 중국이 신흥경제국으로 성장하면서 도시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자, 소규모 건설에 적합한 '소형' 수요도 함께 늘기 시작 최근 몇 년 간 중국의 인건비가 2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그만큼 인력 대체의 범위가 좁아짐: 중국은 앞으로도 연 10%씩 꾸준히 인건비 상승이 이뤄질 것으로

▲ 두산인프라코어, 엔지니어 5명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http://nr.ii/tauu8>

두산인프라코어는 소속 엔지니어 5명이 2018년판 '마르퀴즈 후즈 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세계인명사전에 등재됐다고 8일 밝혔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는 세계 3대 인명사전 가운데 하나로 매년 정치와 경제·사회·종교·과학·의학·예술 등 각 분야별 우수 업적을 이룬 인물들을 선정하

△ 현대건설기계, 중국/인도 법인 인수... '연 5000억 매출 ↑' 전망

<http://nr.ii/9IVNs>

중국지주회사와 인도생산법인이 내년부터 연결실적에 포함되며,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과 인도의 건설기계 법인이 낸 매출은 3144억원, 순이익은 173억원이고, 전년대비 각각 48.5%, 51.3% 증가 올해와 내년 연 당위 매출 추정치는 약 6000억원, 7000억원 일반적으로 해외생산법인은 매출 30% 규모의 CKD(반제품)을 현대건설기계에서 공급을 받아왔고, 내년부터 약 5000억원(18%)의 매출이 증가될 것이라는 전



큰 기계들

▷ 정치택 두산중 부회장 "재생에너지 확대 쉽게 빨리 될수 없어"

<http://lnr.li/YaGoH>

정부는 현재 탈원전·탈석탄 정책 기조 아래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정 부회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열린 무역업계 간담회 직후 "업계도 노력하고 정부도 지원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편을 하지 않으면 ... (재생에너지 분야)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고리1호기 해체 기술 실용화 사업 본격화

<http://lnr.li/YBvBF>

지난 6월 영구정지된 고리1호기 원전을 우리 기술로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핵심기술 실용화 사업이 본격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내 주요 원자력 전문기업과 원자력 시설 해체 핵심기술 상용화를 위한 최종 협약을 체결
이번 원전 해체 실용화 사업은 개발된 기술을 원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사전 단계
: 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체에 이전, 공동으로 검증하고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실용화하는 게 핵심
이미 확보한 핵심기술 중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4개 분야와 각 전문기업을 우선 선정
2019년까지 ▲해체 시설·부지 오염도 측정 기술(㈜미래와 도전),
▲핵심설비 해체공정 시뮬레이션 기술(두산중공업),
▲원전 1차 계통 화학제염 기술(한전 KPS),
▲해체폐기물 처리 기술(오르비텍, 선광T&S)에 대한 현장 검증을 통해 기술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

△ 현대중합상사, 극동러에 '힘센 엔진' 공급

<http://lnr.li/vv94w>

러시아 국영기업인 사하에네르고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사하공화국의 발전시설 현대화를 위한 야쿠티야에너지프로젝트에 착수할 예정
현대중합상사가 참여하는 야쿠티야에너지프로젝트에는 현대중공업이 생산하는 '힘센엔진'이 공급
사하공화국에는 약 170mw의 발전시설이 가동되고 있으나 설비가 오래돼 가동률과 효율이 매우 낮은 상태: 현대는 이 중 140mw 이상의 발전시설을 교체

△ 중부발전과 현대로템, 보령 1~8호기 석탄 취급설비 성능 개선 공사

<http://lnr.li/oDVwh>

2014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한 보령 1~8호기 석탄취급설비 성능개선공사 준공식을 연다고 밝혔
이번 공사를 통해 총 노후화된 17개 라인을 철거하고 45개 라인을 신설해 시간당 3200여톤의 석탄이 안정적으로 공급
현대로템은 추가된 45개 라인 중 8개 라인은 친환경 공기부상 컨베이어로 설치
이는 롤러로 움직이는 기존 벨트컨베이어와 달리 공기의 압력으로 움직이는 만큼, 소음이 적고 석탄 분진 등의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
이번 성능개선공사를 통해 30년 이상 장기 사용에 따른 노후화와 석탄 사용량 증가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
아울러 중부발전은 비산먼지의 근본적 차단을 위해 옥외 저탄장을 2025년까지 전면 옥내화하기로

△ 현대엘리베이터, 중저층 시장 공략 '네오' 출시

<http://lnr.li/vFCMv>

디자인과 건축 효율을 강화한 엘리베이터 신제품 '네오'(NEO)를 지난 4일 출시
별도의 기계실이 필요 없고 국내 최소 승강로 및 피트 깊이를 구현해 공사비는 줄이고 공간 효율은 높임

한진중공업

△ 현대상선, 1만1000TEU급 2척 매입

<http://lnr.li/3iB4I>

현대상선은 31일 한진중공업이 건조 중인 1만10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매입하기로 결정
이번 선박은 고효율 친환경 선박으로 2018년 5월 인수할 예정이며, 인수 후 남미 동안 서비스(NE2)에 투입할 계획
가격은 현재 시장가 대비 10% 이상 경쟁력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수빅조선소 노사갈등, 한진중공업 경영정상화 차질 빛나

<http://lnr.li/Oh1BJ>

한진중공업이 수빅조선소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움직임에 촉각
조선해운 전문매체 트레이드윈즈는 6일 "한진중공업의 수빅조선소 노동자들이 회사측에 파업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수빅조선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세우기 위해 조만간 선거를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
수빅조선소에는 18개의 하청업체가 들어있고 한국인과 필리핀인 등 모두 3만3천여 명의 노동자들
노동자들은 한국인 상사들이 부당한 노동관행을 강요했을 뿐 아니라 신체적으로 가혹행위도 했고 여성노동자들을 성희롱했다고 주장

여타 기계들

▷ 한화, STX엔진 인수전에 증권 계열사 내세운 배경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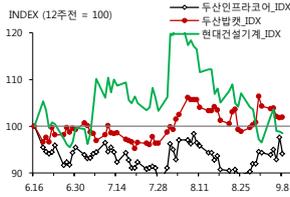
<http://lnr.li/rNntf>

STX엔진 매각 예비입찰에 참여한 한화그룹이 방산 계열사가 아닌 증권사를 내세운 배경에 대한 궁금증
쏠리스트(인수적격자)로 선정된 후보들은 현재 창원(엔진 부문), 용산(전자통신 부문) 공장 등을 돌며 현장실사와 함께 경영진 인터뷰를 진행
한화투자자권을 통해 예비입찰에 참여한 한화그룹은 STX엔진의 디젤엔진 사업(민수·특수)과 전자통신 사업 중 후자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해당 부문이 올 상반기 STX엔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에 불과
이에 사업군 일부만 인수를 원하는 한화 측이 한화테크윈 등 방산 계열사가 아닌 한화투자자권을 우선 매수 주체로 세운 것이라는 업계 관측
한앤컴퍼니 등 일부는 STX엔진과 STX중공업까지 추가·보기엔진 제조사 동시 인수를 통한 시너지를 노리는 점도 이번 매각의 판세를 움직이는 요소
쏠리스트 일부 참여자들은 올해 말 돌아오는 차입금 만기 연장은 물론이고 ...
... 자율협약 과정에서 적용받은 낮은 금리(1~5%)를 매각 이후에도 일정기간 유지해달라고 요구한 상태



건설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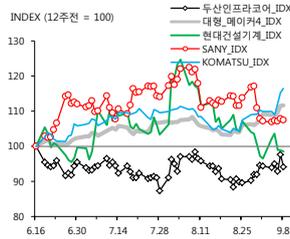
▶ 한국시장 상장 3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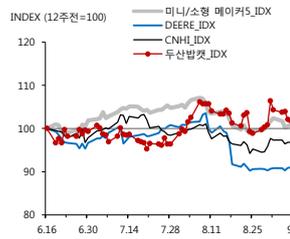
▶ 대형 vs. 미니/소형 vs.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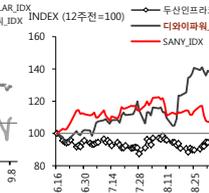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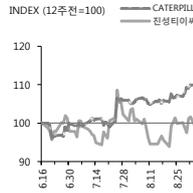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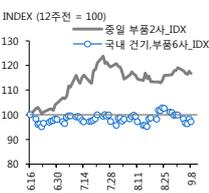
▶ 대형: 두산, 현중, 사니, 고마쯔



▶ 미니 소형에서 두산발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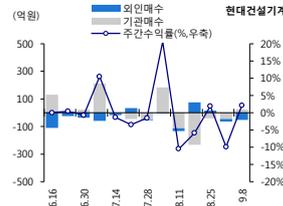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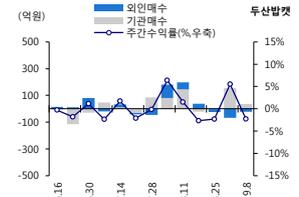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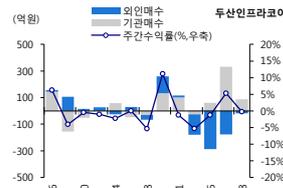


▶ 건설기계 해외 vs 한국 부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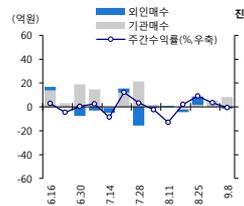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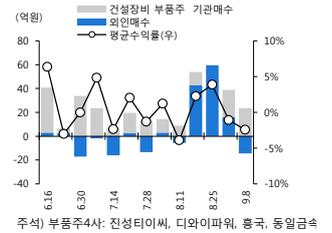


건설장비 수급

▶ 건설장비 메이커3사



▶ 건설장비 부품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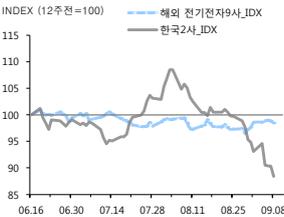


▶ 진성티어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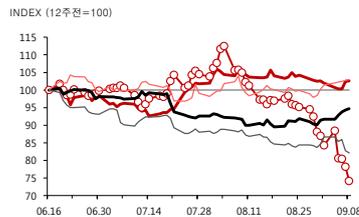


중전기

▶ 한국 vs. Global P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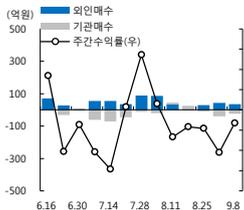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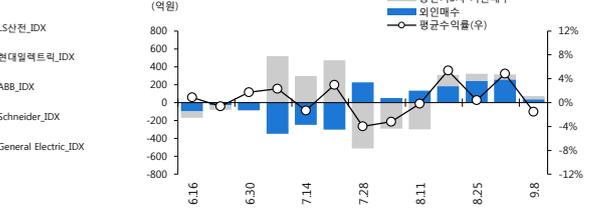


▶ 한국 동력부품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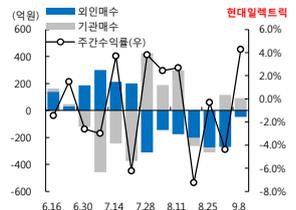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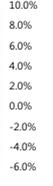


중전기 수급

▶ 동력부품4사 수급



▶ LS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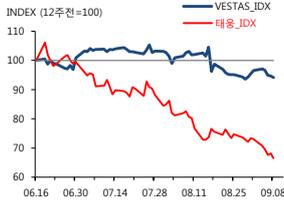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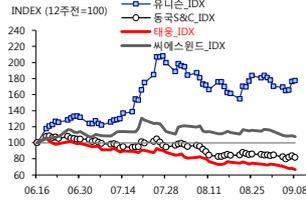




풍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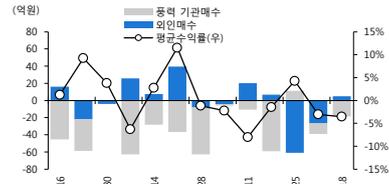
▶ 한국 풍력 부품사 vs. Global Peer

▶ 한국 풍력부품5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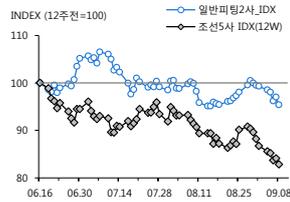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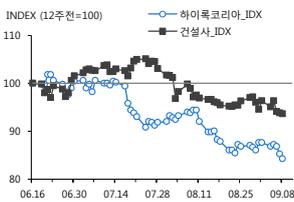
풍력 수급

▶ 풍력부품4사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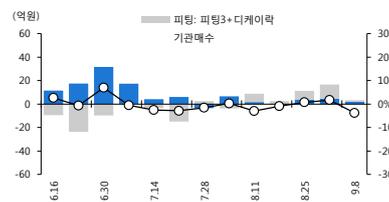


피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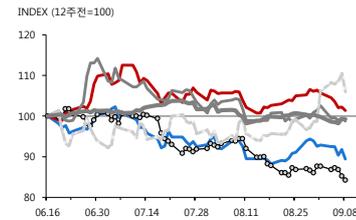
▶ 피팅 VS 전방1 건설



피팅업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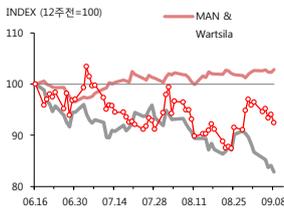
▶ 피팅 및 밸브사들



조선기자재

▶ 두산엔진 vs 조선5사 vs 해외 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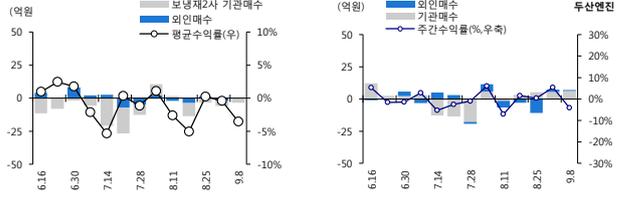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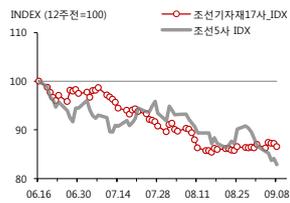
▶ 엔진3사



조선기자재 수급

▶ 보냉제 2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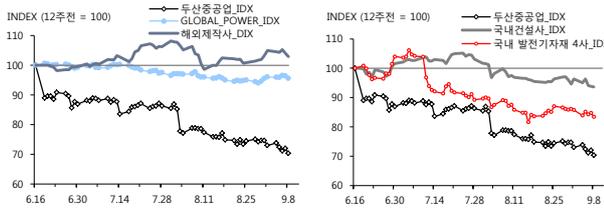
▶ 두산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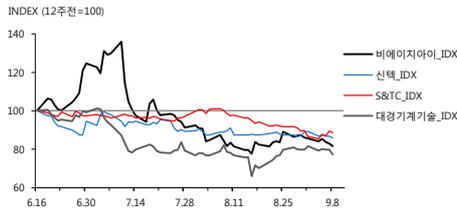


발전 및 발전기자재

- ▶ **두산중공업 VS 해외 PeerGroup**
- ▶ **한국EPC vs 두산중공업 vs 발전기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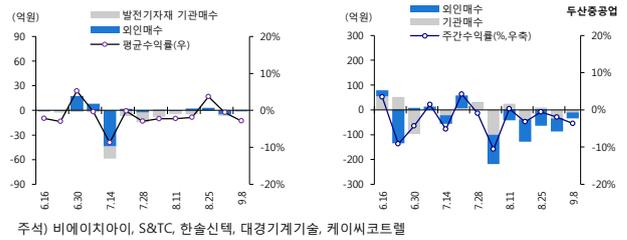


▶ 발전기자재 등



발전업 수급

- ▶ **발전기자재5사(두산중공업 제외)**
- ▶ **두산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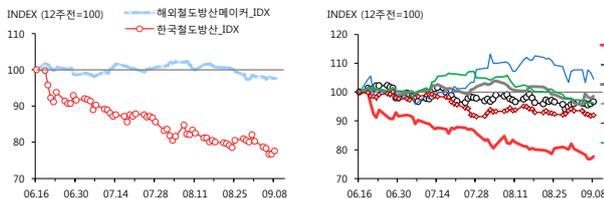


주식) 비에이지아이, S&TC, 한솔신텍, 대경기계기술, 케이씨코트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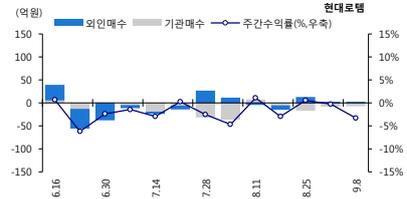
철도/승강기

- ▶ **철도 vs Global Peer**
- ▶ **철도 vs Global Peer 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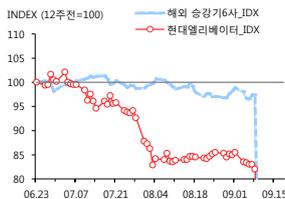


철도/엘리베이터 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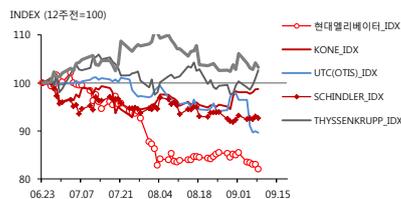
- ▶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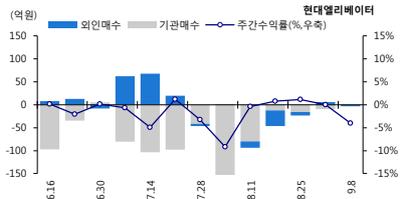
▶ 엘리베이터 vs Global Peer



▶ 승강기 vs Global Peer 개별



▶ 현대엘리베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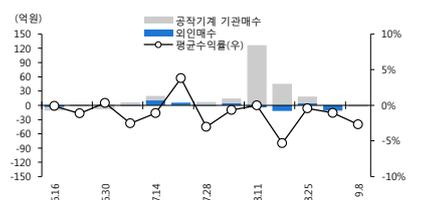
공작기계

- ▶ **한국소형6사 vs Peer Group**
- ▶ **Global Peer - 지역별**



공기 수급

- ▶ **공작기계 부품 수급**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에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당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사 : 최광석, 원민석)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1. 종목추천 투자등급 (추천일기준 증가대비 3등급) 종목투자자의견은 향후 6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율을 의미함.(2017년7월1일부터 적용)
-Buy(매수):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Hold(보유): 추천일 증가대비 +15% ~ -15% 내외 등록
-Sell(매도): 추천일 증가대비 -15%이상
2.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 (중립), - Underweight (비중축소)

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7-06-30 기준

구분	매수	중립(보유)	매도
투자의견 비율(%)	89.2%	10.8%	-